

실내 사무 공간 가구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금속가구디자인 조형적 특성 중심으로 -

양 우 창¹, 김 명 태^{†,2}

¹중부대학교 인테리어학과, ²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Interior Office Space, Furniture Design Trends Study

- Metal Furniture Design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enter -

Woo-Chang Yang¹, Myeong-Tae Kim^{†,2}

¹Department of Interior Design, Joongbu University, Geumsan, Chungnam 312-702, Korea

²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Kongju University, Kongju, Chungnam 314-701, Korea

Abstract: Metal furniture design in this stud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period of office space by Metal furniture design Metal furniture for soci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In other word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country's formative characterize metal office furniture design characteristics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e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ffice automation in the 1960s, causing a drastic change in the world at the time of furniture developed in Germany, Italy, the United States, Japan, and examine each country's furniture and metal furniture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design trends in office organize, and research methods literature and various data classification by age and by extracting the key trends are established 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design tends to obscure the distinction between two different aspects of the design appear rarely common or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are characterized by two. This furniture range has expanded to use metal and metal to minimize the negative aspects of a conventional flexible image is designed to suit the tastes of modern design and metal furniture design, interior space, except that now it is considered that the most can be identified.

Keywords: metal furniture design, office space, design trends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가구디자인 분야에서 목재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자료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

루어진 적은 적지 않으나 보다 심도 있게 금속가구만을 구분하여 그에 대한 역사나 이론을 수집하여 정리한 연구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된 바가 드물다. 대부분의 가구디자인 관련 연구나 교육이 목재가구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국내 가구디자인학과 출신 학생들이 금속가구의 역사적인 양식이나 특징 및 금속가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

2013년 9월 26일 접수; 2013년 10월 22일 수정; 2013년 10월 24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명 태 (mtkim@kongju.ac.kr)



Fig. 1. Louis Sullivan.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금속가구디자인에 있어서 근대에 들어서서부터 현재까지의 제품을 뒤돌아보고, 그 발전사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발전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기초적 학습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속가구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방대함과 자료의 미비함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나 디자인 작업 시, 혹은 금속디자인 관련 교육현장에 필요로 하는 금속가구의 역사적 양식이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나 자료정리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에서 현대까지의 사무공간 중 금속디자인을 중심으로한 금속가구에 대한 연대기와 양식별로 구분하여 금속가구 발달에 미쳤던 제반환경 및 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들을 이론적인 틀을 제시함으로써 각 시대별, 국가별 금속 사무 가구디자인의 특성과 문화의 발달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1960년대 컴퓨터와 사무자동화의 발전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에서 출발하여 어메니티(Amenity) 시대로서의 1980년대, 인텔리전트(Intelligent)하고 정보화 사회로서의 현대까지의 대표적 가구업체와 제품의 특성 세계의 가구 선진국인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각 나라별 가구를 조사하고 현재 사무용 금속가구 디자인의 경향을 정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관련 문헌과 기사, 각종 업체 및 디자인 조합 등을 통한 자료 확보와 둘째

자료 분석을 통한 시대별 분류 및 핵심 경향을 추출하며 셋째 추출자료의 정리 및 양식의 경향을 확립한다.

2. 실내 공간 사무용 금속가구의 고찰

2.1. 금속가구

금속가구는 철강시대의 부산물이다. 1800년대 후반 미국 시카고에서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과 그의 동료들은 시카고의 대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사무용 건물들을 다시 설계하였는데, 그 당시에 새롭게 발전된 강철과 벽돌을 사용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현대적인 초고층건물(Skyscraper)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높이 올려진 고층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건물들이 가능한 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졌다. 비록 건물의 외관이 목구조 건물과 비교할 때 화재의 위험은 감소했지만, 아직 내부는 다량의 목재가구와 다른 가연성의 재료들이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화재의 위험과 그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도시의 소방서에도 새로운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고층 사다리차가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설리반의 말처럼 가구업자들은 전통적인 사무용 목재가구를 대처할만한 소재로 화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강철을 이용한 사무용 금속가구의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2. 대표적 기업들과 생산품 - 모던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생산직 종사자들로 인한 양적으로 인간욕구를 충족시켰으나, 정보처리 및 자동화 등으로 질적인 인간욕구에 의한 사무직 종사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사무실 또는 사무공간이라 통칭되는 오피스 개념의 공간에 채워질 금속가구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1902년에 오하이오주에 '제너럴 방재회사(General Fireproofing Co.)'가 설립되었고, 1912년에 '스틸케이스(Steelcase)'사가 미시간주에 세워졌다. 클래식하면서도 견고하고, 불에 강한 금속제 책상의 공급과 파일링시스템을 캐비닛, 선반 등으로 대체하여 대중의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또한 사무용 가구의 현대적인 형태를 보인 1938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 Wright)가 존슨 앤 선(Johnson & Son)빌딩을 설계하면서 내부공간을 혁명적으로 조직한 오픈 플랜 오피스(Open Plan Office)를 적용하면서 내부의 집기를 철재와 목재를 혼합한 유기적인 사무가구를 개발하였는데 책상의 천판이 3단으로 나뉘어져 선반, 업무, 타이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자는 캐스터가 달린 것으로 사무가구의 획기적 제안이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리성을 추구한 것이었다.

30년대에는 알루미늄 합금에 의한 금속가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알코아(Alcoa)사에서 브루스 배스터키(Bruce Bastoky)의 알코아 알루미늄 특수의자(Distinctive Chairs of Alcoa Aluminum, 1934)를 생산했다. 이후 금속가구회사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은 사무공간의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구조를 찾고자 노력했으며, 당시 영향을 주던 모던(Modern)한 형태에서부터 매끄러운 이탈리아 양식(Italian styling)까지의 다양한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8년에 '제너럴 방재회사'가 선보인 'GF시리즈'로 유명한 의자는 소비자로 인체공학적 가능성을 갖도록 하였다. 일명 '굿폼체어(Goodform Chair)'라 불린 이 사무용 의자는 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등뼈의 곡선에 따른 수평·수직·높이·균형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의 전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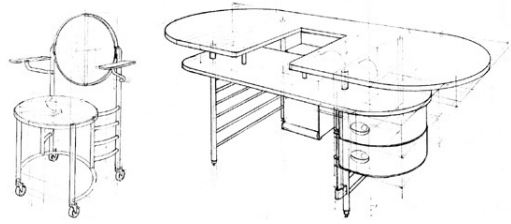


Fig. 2. Frank Lloyd wright desk and chair, Johnson Wax Building, Racine, WI.

2.3. 시스템 금속가구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무용 가구는 모듈러 워크스테이션(Modular Workstation), 일명 시스템가구(System Furniture)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구와 집기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요구로부터 출발된 것이었다.¹⁾ 사실, 시스템 가구가 인기를 얻게 된 미국에서 시스템가구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통속적인 사회학의 노출적인 혼합이었다.

2.4. 사무용 가구의 소재

사무용 금속 가구에 주로 쓰이는 소재는 강²⁾으로 다음과 같다.

2.4.1. 강판 아연철판

탄소 함유량이 작은 강판일수록 강도가 적고 부드러운 면 가공에 좋다. 그러나 일반 강판은 산화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표면 가공을 하고 도금하여 내장 재료로 사용한다. 아연철판은 강판에 아연 도금을 하여 강고한 피막을 준 것이다.

2.4.2.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폴리쉬, 헤어라인, 에칭, 착색 등이 표면 마감되면 아름다운 외관을 갖게 되며, 내용적으로는 내식성 내열성 및 기계적 성질 등을

1) Peter Dormer, 강현주, 조미아 역, Design since 1945, 시각과 언어, 1996. pp162-166.

2) 강은 일반적으로 탄소강 또는 보통강이라 하며 0.03~1.7% 범위의 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강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저탄소강(탄소 함량이 비교적 낮은 0.02~0.25% 내외로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재료 이다) 주탄소강, 고탄소강 등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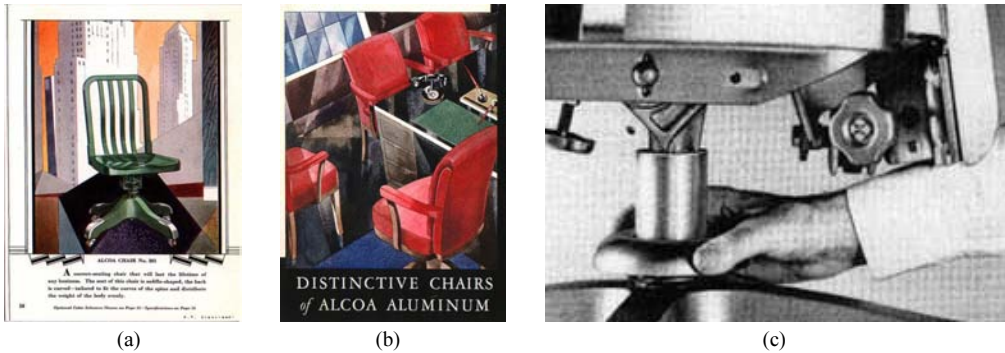


Fig. 3. (a) Alcoa Chair, No. 203, (b) Distinctive Chairs of Alcoa Aluminum (1934), (c) GF Series Chair (1968).

갖는 마감 재료가 된다.

2.4.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으로 탄화 피막에 의한 부식을 자기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에 극히 소량의 망산이나 실리콘 등 기타 금속을 가하는 것이 알루미늄 합금이다.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보다 강도나 내구성이 압축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표면처리로는 야금도장 약극소화, 도금마감 등이 있다.

2.5. 제조공정

제조공정에서 금형에 따른 형태와 부품부착 및 조립에 따라서 금속재 가구의 종류는 많으나 기본적인 공정에는 차이가 없다. 금속가구의 제조공정은 가구의 몸체 부분을 절단기나 절삭기를 사용하여 자르는 절단 부위별 금형을 절곡기로 하는 절곡 프레스를 사용하여 프레스가공과 프레스 접합 부위를 응용가열하여 가공하는 용접, 용접 흠을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고 녹,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표면처리 도장 및 건조 부분조립 및 부착 및 금사 포장 순으로 이루어진다.

3. 사무실의 변천과 일반 사무용 가구의 역사

3.1. 창조성이 결여된 사무공간 형태와 사무용 금속가구의 등장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자동차 생산라인의 대량생산 방식의 확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

이다. 기계화된 공장에서 절대시 되어오던 효율성이 차츰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사무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사무실을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넓은 공간에서 같은 모양의 많은 책상들이 교실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가구배치는 사무를 공장에서 진행되는 작업과 같이 단순한 작업 위주로 진행시켜 창조성이 결여된 사무공간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사무실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전화기와 타이프라이터의 등장이며, 타이프라이터는 데스크의 모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루 종일 타이핑하는 직종의 출현과 함께 데스크의 높이가 작업능률이나 피로도에 직결된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높이 조절기능을 갖는 회전 의자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여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 의자의 구조나 치수 그리고 재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높아갔다. 또한, 1920년대에 들어서서 진보적인 사무실에서는 금속제의 가구나 캐비닛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미국에서는 공업생산화와 경제의 광역화, 복합화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산업디자이너들에 의해 미래형 사무실이 제안되었다. 레이먼드 로위에 의해 제안된 ‘어떤 디자이너의 오피스’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이미 그 당시에 ‘미래형 사무실’라는 명칭을 시험적으로 붙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왜

나하면 사회의 공업화가 가속화되고 일반인들은 공업화가 가져오게 될 미래에 커다란 기대를 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2. 사무용 가구의 새로운 형태 등장

1940년대에는 사무용 가구는, 특별 주문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대량생산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였다. 냉난방, 공조 시스템, 조명기술의 발달을 가져오고 철제가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1946년 미국의 디자이너인 조지 넬슨(George Nelson)은 타피스트의 역할을 합쳐놓은 L자형 워크스테이션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1947년 넬슨이 최초로 기능이 있는 파티션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오픈 스페이스에서 레이아웃을 풀어 가는 열쇠가 되었으며, 사무공간의 획기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고 개인작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40년대 말에 미국의 허만 밀러(Herman Miller) 등은 사무용 책상을 개발하였다. 최초의 컴퓨터인 유니백(UNIVAC)이 1951년에 등장하면서 사무공간에서의 각종 자료처리 등이 빨라지고 개인전화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무공간은 더욱 복잡하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3.3. OA (Office Automation)화와 새로운 가구 배치, 패널시스템의 등장

1970년대에 들어서서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의 발전은 사무실에 급격한 변화를 일게 하였으며, 각종 관련 기기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사무실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또한 각종 사무용 가구에 인간공학(Ergonomic)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무실에서 작업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실천했던 것은 1950년대 후반에 독일의 퀵보너 팀(Quickborner Team)에 의하여 제시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Office Landscape)였다.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전달방법을 합리화하고, 그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창조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인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종래의 전통적인 계급조직에서 탈피하여 작업자의

커뮤니케이션과 작업흐름을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오픈사무실에서 비용을 들여, 방을 만들지 않고 가변성 있는 공간을 계획하며 업무흐름에 따라 책상을 자유롭게 배열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천장구조와 유동성 있는 칸막이로 흡음을 처리하였다. 또한 중앙식 파일링 시스템과 직원의 휴식 공간 배려 및 식물을 실내에 들여와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벽체의 제거로 인한 소음발생과 작업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며 대형 가구의 유동성 문제 등이 극복되어야만 하였다.

이때에 미국에서는 로버트 프롭스트가 데스크를 중심으로 한 개인작업과 자료의 유효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자료가 유효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장되기 때문이므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눈에 잘 띄도록 책상전면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작업 중에 주위의 파트너와 진행하는 회의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잠깐 서서 회의를 하거나 그에 대응하는 가구형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1968년에 시스템가구 시장의 리더로 활약했던 허만 밀러사의 패널시스템 ‘액션 사무용 가구(Action Office Series)’로서 시장에 등장하여 새로운 사무용 가구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사무용 가구는 최초의 완전히 유동적이고 통합된 모듈 지향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건축기술로 가능해진 대형 사무공간에서 인간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기능을 자유로이 조합할 수 있도록 파티션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나 개개의 워크스테이션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가구였다. 이 시스템은 융통성과 실용성, 개별적으로 일하는 장소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부피가 큰 책상의 측면과 뒷판을 없애고 책상 천판과 파일선반, 캐비닛 등을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파티션에 매달고 패널은 직물로 감싼 소음을 완화시켰으며 패널 표면에 메모 등을 붙을 수 있도록 하여 가림막 형태가 아닌 기능이 부여된 파티션으로 개발되었다.

커뮤니케이션과 그에 대한 분석은 1970년대 가구디자인, 특히 사무용 가구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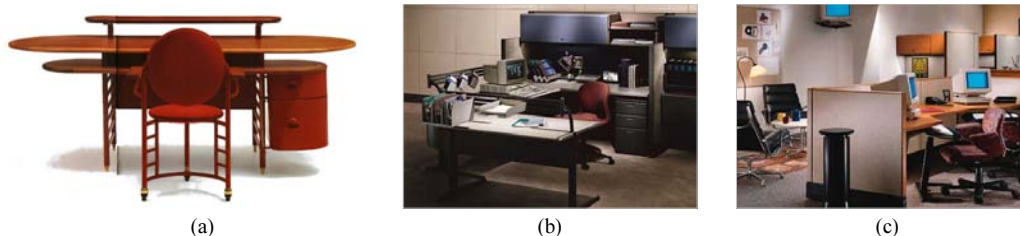


Fig. 4. (a) Frank Lloyd Wright Desk and Chair, Johnson Wax Building, Racine, WI, (b) Action Office Series 2, (c) Action Office Series 3.

미쳤다. 연구는 사무실 각 부처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개인은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OA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 장애 등도 생겨나 오피스 의자는 한층 개선되어졌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들어서서 종래의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기능을 갖춘 고성능적인 것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3.4. 어메니티(Amenity) 시대

1980년대에는 거품경제의 붕괴도 있어서 약간 정체현상이 있었지만, 어메니티의 시대로서 인간의 쾌적성,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큼 오피스 환경이 정리되어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오피스는 이제 과학에 대응해서 보다 고도로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 된 정보화의 증혁의 장으로서 한층 가치를 높이게 되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사무용 가구시스템의 기능성은 개인의 책상과 각종 집기류 속에 OA기기(컴퓨터, 프린터, 전화, 팩스, 복사기 등)가 포함되면서 이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OA기기를 연결하는 전선(전력선, 통신선, 정보선)들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것의 해결을 위하여 사무용 시스템가구가 더욱 발전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건축가들이 사무용 가구를 디자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의 활성화가 고품질의 생산과 지적인 모던 디자인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높은 수준의 기술자에서 단순한 의미 전달자라기보다는 성직자와도 같은 컨설턴트와 발명가로 변신하는 과정은 1945년 이래 디자인 발전의 주제 중의 하나였다. 의식을 강

조하는 아이디어는 빌 스템프(Bill Stumpf 미국, 1936-)가 예쏘스페이스(1986)라는 이름으로 허만 밀러사를 위해 디자인한 사무용 시스템가구를 디자인하면서 가졌던 생각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는 그의 시스템가구가 시스템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대신 문명화된 사회로서의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창조했다.

즉, 일로부터 휴식이 제안되었다. 스템프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장소에 두지만 반드시 손 가까이에 둘 필요는 없다는 디자인 전략과 관련해서 ‘적절한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예쏘스페이스를 그 공간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편안하게 잘 조작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고품질의 느슨한 시스템으로 디자인하였다.

사무용 가구는 가구디자이너들에게 아직 예술가로서의 영역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으나 1970년대와 80년대의 사무실의 진보에 부응하여 예술적인 가구를 생산하기도 하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다.

사무용 가구의 기능은 현대에 들어 크게 발전되어, 의자에 대한 근무자의 의식도 변화하였다. 금일 각종 작업자세와 개개 근무자의 신체에 적합하도록 잠금 장치와 상하조절 기능 등의 메커니즘이 부가된 의자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4. 시대별 특징분석

4.1. 후기 산업사회의 영향

4.1.1. 사회, 경제적 특성

50년대 말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종말을 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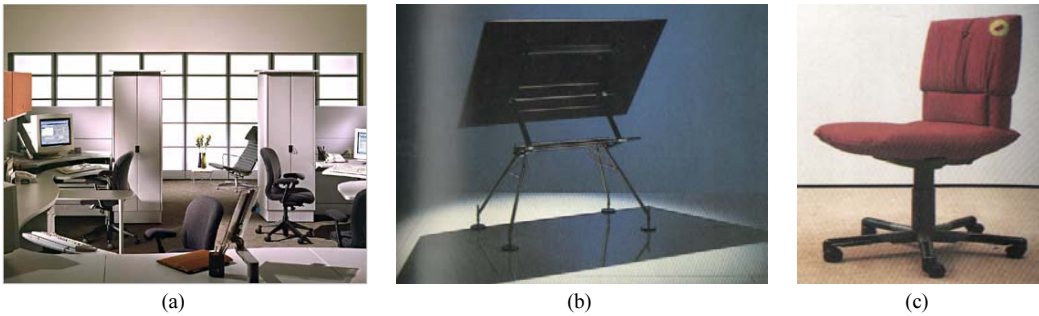


Fig. 5. (a) Esso space office systems furniture (introduced in 1986), (b) Nomos Office Furniture System (UK, 1986), (c) Pegular Office Chair (1985).

는 전환기였고, 60년대 중반은 정보혁명과 첨단 테크놀로지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기였으며, 70년대 중반에는 대체 기술 운동으로 과거의 산업사회와도 전혀 다른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술의 혁신으로 도구의 소량 주문생산,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생산조직의 변화는 인간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시기 문명의 특징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므로 사회의 많은 가치들에 대하여 재고해 보는 것이었다.

60년대 이후 성장의 한계에 따라 과학기술이나 생활의 물질적 수준 같은 관점만 갖고서는 진보를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특히, 대기오염과 쓰레기 범람, 자원 고갈, 도시부패, 인구증가 등의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의 모색과 과거의 문명과 풍조에 대하여 반성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적극 받아들이게 되고, 50년대까지의 기능주의 이데올로기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국제주의 양식도 그 추진력을 잃기 시작했다. 디자인 방법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질서정연한 활동으로 구체화되었지만 디자인 방법의 모순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방법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난 19년 간의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므로서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디자인 철학을 탐색하게 되는데 인간 회복에 요구되는 완전한 인식을 위한 하나의 행동양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고도 정보 사회의 산업은 지금까지의 명백한 물질의 가치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디자인이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연결된다는 것, 인간을 주역으로 한 것, 즉 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4.1.2. 조형적 특성

이 시기에는 현대디자인이 추구해 온 양산성, 실용성, 경제성의 근거와 그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기능주의의 표현방식은 대중의 기능을 표현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획일성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인간의 회복에 요구되는 완전한 인식을 위한 하나의 행동양식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이탈리아에 강하게 파급되었고,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는 맨 처음 몇 건축학과를 통해 나타났다. 1960년대 후반 반디자인 운동(Anti design 혹은 Counter Design)은 디자인과 건축의 발전에 관심을 둔 것으로 건축과 디자인 그 자체를 무시하고 역설과 이상향을 구사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하여 인간의 가치에 근거한 디자인 철학을 탐색하여 인간에게 의미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상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모든 기능주의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상물의 의미를 분

석하고 정의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제는 디자인의 방법으로서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로서 그 존재가치가 부여되었다.

다시 말해, 가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거절하고, 이것의 사회적 의의를 제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디자인 목적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디자인의 목적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디자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적, 즉 실용적인 것은 2차원적인 것이 되고, 우선 인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시각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부각되는 경우, 혹은 아예 기본적인 기능은 배제한 경우 역시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실용적 조형의 디자인에서 순수조형의 디자인도 인정되는 것으로 디자인의 목적이 다양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모홀리 나기는 “‘기능’의 개념에 대하여 제한된 의미의 기계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에는 생물학적, 정신물리학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4.2.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자인의 다원화 시대

4.2.1. 사회, 경제적 특성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현대 가구디자인은 기술과 신소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그 특성에 따라 형태와 구조 색채의 결과가 달라지곤 한다. 이러한 기술 향상과 공학적인 신소재의 개발로 이 시기의 가구들은 일종의 하이테크 스타일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멤피스(Memphis)는 80년대 초부터의 기울어진 책상, 끄떡이는 테이블, 손잡이 달린 의자와 같은 시각적 관능주의와 초현실적 특징을 지닌 디자인 활동을 통하여 신문과 대중에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디자인 운동에서 ‘대체’의 가능성을 살리는데 성공하였다. 멤피스의 활동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질문과 비평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기를 맞는다. 업체와 디자이너들은 세계 무역에서의 흑자 수지를 위해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을 인식하고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신소재 개발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성취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미래디자인 성찰의 주요한 테마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1990년대는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나, 기술과 소재에 의해 새로운 기능의 제품들이 탄생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소재개발의 응용으로 가능하였다. 디자인의 적합성으로 획일적인 디자인을 거부하는 이 기간은 다양한 경향을 갖는 디자인의 공존과 함께 그 범위를 정하기에 모호한 각 경향의 공통적인 조형양식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소비사회의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보여지며 1980년대부터 디자인의 다원화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4.2.2. 조형적 특성

1981년 밀라노에서 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Jr.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실험적 그룹인 멤피스는 처음 시작은 소트사스의 고대문명에 대한 심취와 현대 팝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과감한 실험은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못지않게 의미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급진적 의미를 지닌다. 형태적 특징은 감성적이었지만 그들은 비판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제안적이었다. 스타일에 있어서 낙천적이며, 성숙을 거부하며 직관적인 것이 형태상 특징으로 이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래없는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였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근대 건축운동 이후의 경향에 대하여 레이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구분하였다. 레이트모더니즘은 근대건축운동의 사상, 이론, 양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으로서의 미를 기술적인 완성의 결과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건축 사상을 의도적으로 전면 거부하며, 새로운 건축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에서 시

작하여, 건축이 기술적 측면과 심미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예술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건축가는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기 위해 폭넓은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론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운동으로서 디자인의 상업과 산업의 부가물이 아닌 인간과 물질세계 간의 순수한 의사소통의 매개체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은유, 장식, 다색채, 관습 등의 레퍼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처럼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 공감대는 국제양식과는 달리 다원화된 절충주의라는 차이가 나는 공감대를 이룬다. 국제양식과 같은 전제주의적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들과 공존하는 하나의 장르이다. 포스트모던의 디자이너들은 이미지를 명백한 직유로 나타내는 의인적인 은유나 형이상학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모던 건축가와는 달리 표현상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아마도 은유와 상징의 사용은 모던 운동에 억압되어 왔던 이유로 이 당시 그들의 재출현은 이제 미확립된 형이상학적 시대에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을 준다.

5. 현대 사무용 금속가구디자인의 경향

5.1. 대표적 가구업체의 연혁 및 제품 특성

5.1.1. 미국

5.1.1.1. 허먼 밀러(Herman Miller)

허먼 밀러사는 디 제이 테프리에 의해 1923년 설립되었으며, 그가 회사를 이끄는 30년 동안 디프리는 허먼 밀러의 형태를 소규모의 가정용 가구회사에서 동시대를 반영하는 가구, 사무용 가구디자인을 개선하여 바꾸어 놓았다.

1960년대에는 8년간의 연구 끝에 로버트 프로프스트(Robert Propst)가 액션 오피스(Action Office)라 불리는 최초의 개방형 계획 가구시스템을 개발



Fig. 6. Eclatah (1984).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업체에서 개방형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허먼 밀러의 의자 제품은 또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보여준다. 1976년 에르곤 의자(Ergon chair)는 사무실 의자에 있어서의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고, 1984년 에쿠아 의자(Equa chair)는 편안함과 인간공학적인 면을 지지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1994년에는 에르곤 의자 디자인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세계의 여러 박물관에 하나의 소장품으로 전시되고 있다.

5.1.1.2. 놀(Knoll)

놀(Knoll)사는 사무용 가구디자인과 제조업체를 리드하는 회사로 격조 있는 사무실 및 가정용 제품을 개발한다. 놀의 디자인 철학은 세계의 뛰어난 디자이너들과 협동 작업을 하여 기쁨과 영감을 주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가구디자이너는 임스와 사아리넨을 들 수 있다. 사아리넨의 대표적인 툴립의자는 파이버 글래스로 된 몸체와 알루미늄 위에 플라스틱 코팅된 지지대로 만들어졌다. 임스는 허만 밀러를 위해 장미목합판 몰드와 알루미늄 주물과 금속으로 라운지 의자(Lounge Chair)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놀사의 특징과 성공의 비결은 40년대 후반 동시대의 디자이너의 작업을 과감하게 생산하고, 모던 클래식 유명 디자이너 작품을 동시에 생산한 것으로 디자인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Fig. 7. Richard Sapper (1986).

구축하였다.

모던 클래식의 놀 스튜디오(Knoll Studio)는 활동적인 사무실과 눈에 띄는 주거를 위한 좌석, 테이블과 책상을 포함한다. 놀 스튜디오는 기품과 장인정신 및 상징적인 디테일을 부여하여 디자인한 정교한 작품을 나타낸다. 놀의 사무제품 라인은 사무시스템, 사무용 의자류, 목재 및 금속 책상들, 파일과 보관함, 천과 가죽을 포함한다.

놀사의 디자인 철학은 고객의 필요사항을 기본

으로 한다. 즉, 사업의 특성과 변화스러움을 고려하여 고도의 작업 장소 창조를 위한 작업장소의 개념을 혼합하는 것이다.

5.1.1.3. 스틸케이스(Steelcase)

1912년 피터 웨지(Peter M. Wege)가 동업자 월터 이데마(Walter Idema)와 함께 Metal Office Furniture Co.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1915년 철제 사무용 책상 생산을 시작하여, 1919년 철제 캐비닛을 생산하였고 1937년 당대 저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와 ‘Open Office System’을 개발하였고, 1939년에는 철제 사무용 의자 생산을 시작하였다. 1949년에는 업계 최초로 조립식 사무용가구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1988년 미시간주 켄우드(Kenwood)에 스토우 앤 데이비스(Stow & Davis) 공장을 세계 최대의 목재가공 공장 규모로 증설하였고, 본사에 세계 최대 규모의 R & D (Research & Development)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회사의 제품 중에 프리스탠딩 퍼니처 시스템(Freestanding Furniture System)이 Idea상(Industrial Excellence Award)을 수상하였다.



Fig. 8. (a) 테이블 발레트(Ballet), (b) 허브 테이블(Hub Table), (c) tXTM오피스시스템(tXTM Office Systems), (d) 시리즈 9000 (Series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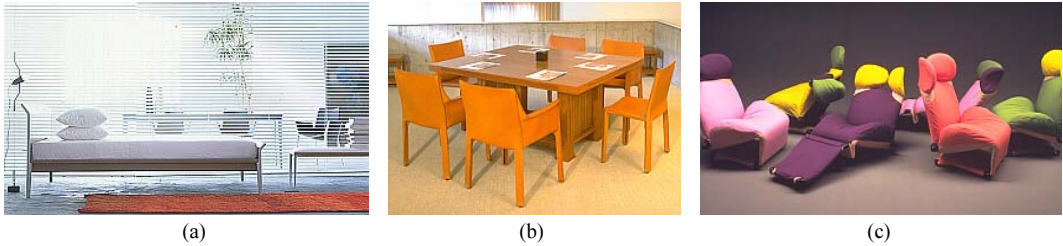


Fig. 9. (a) “I Letti di Cassina” 쉼브라(Sombra) (1994), (b) 캡(Cab) 암체어 (1994), (c) Wink Armchair (1976-1980).



Fig. 10. (a) 브리즈(Breeze), (b) 스틸 빔(beam).

5.1.2. 이태리

5.1.2.1. 세지스(Segis)

1983년 설립된 이래 세지스는 두드러진 기술적 노하우와 품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세지스를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프랑코 도미니키(Franco Dominici)의 지휘아래 세지스는 ‘우수한 디자인’의 단계를 향해 우아한 제품들을 생산해 왔으며 높은 질적 수준과 경쟁적인 가격을 위해 질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왔다. 세지스는 환경의 원칙을 엄격히 따르면서 작업하는 기업으로 점점 높아져 가는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해내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젊은 그룹이다. 사용되는 소재들은 완전히 재활용되며 포장은 대부분 다시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쇄물은 재활용되는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되고 기술과 생산 사이클이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진다. 또한 테이블 상판

의 마감에서 크롬과 납성분을 제거하였고, 식품용 EEC 89/109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은 엄격한 그들의 품질 통제를 통과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연구기관의 테스트를 받기도 한다. 세지스는 많은 디자이너들과 작품을 같이 제작해왔는데, 그중 2000년 밀라노 쇼에서는 세지스의 이름 아래 두 가지의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안나 카스텔리 펠리에리(Anna Castelli Ferrieri)와 바르토리 디자인(Bartoli Design)이 디자인한 제품군이 그것으로 카스텔리 펠리에리는 그녀의 흔적을 가죽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물결 모양의 암체어인 ‘다운타운(Downtown)’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바르토리 디자인 스튜디오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깨끗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디자인된 의자와 암체어인 ‘갤러리(Gallery)’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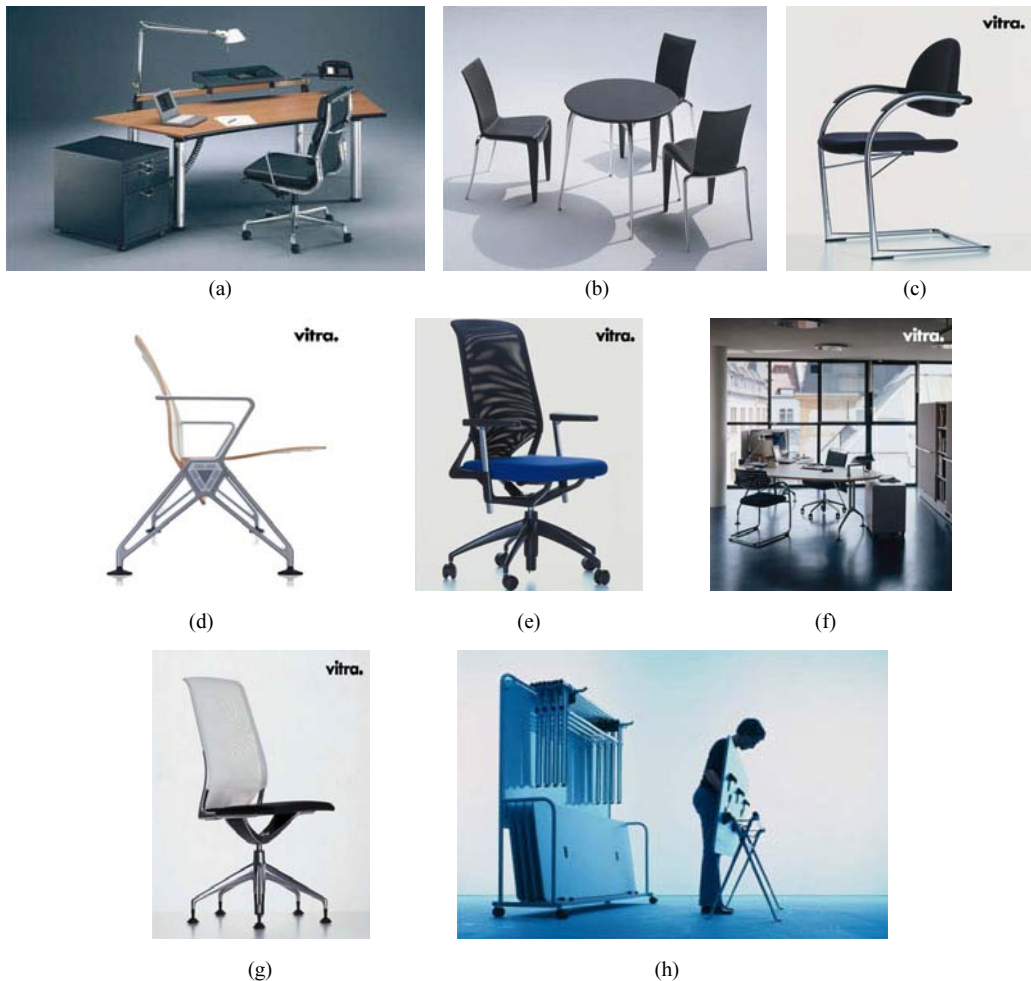


Fig. 11. (a) Metropole workstation (1988), (b) Lewis collection, tables and chairs (1992), (c) Onda Chair (1990), (d) Air Line, (e) meda Chair 2, (f) Ad Hoc Program, (g) Meda Chair, (h) IXIX Table.

5.1.3. 독일

5.1.3.1. 비트라(Vitra)

비트라는 주거공간과 공공장소, 사무실을 위한 가구의 시장을 위해 제작하는 국제적인 가구회사이다. 비트라의 고객들로는 국제적인 선두 그룹회사와 연구소가 포함되며, 비트라 대지의 건물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현대 건축물에 영향을 받았다. 1989년 후부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전시, 워크숍 및 출판과 함께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은 국제적인 주위를 끌어들였다.

비트라는 국제적으로 그 시대의 주요 디자이너

들과 일해 왔으며, 40년 이상을 미국의 유명디자이너들에 의해 개발된 가구를 제조하여 왔다. 비트라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술적, 인간공학적, 생태학적, 사회적인 시각을 기초로 하여, 혁신적이고, 견고한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5.1.3.2. 레셔널(Rational)

레셔널사는 1963년 발터 휘셔(Walter Fisher)가 소규모의 공장을 설립한 이래 오늘날까지 소비자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이념에 따라 꾸준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최상의 품질 개발을 이루어온 독일의 주방가구업체이다. 레셔널(Rational) 브랜드



Fig. 12. 알루미늄 프레임과 포기 글라스의 조화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가벼움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깊이감이 느껴진다.

드의 의미는 어느 곳에서나 소비자들이 최상품의 주방가구를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단정적으로 보여준다. 레셔널사의 주방가구 스타일은 농장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기는 솔리드 우드(Solid wood) 제품에서부터 발달한 색채와 미래적인 소재로 과감한 변혁을 보인 모던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업계의 글로벌화 추진의 일환으로 1993년 이탈리아 스나이데로(Snaidero)사에 인수되어 스나이데로 그룹(Snaidero Group)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쌓아왔던 독일 특유의 앞선 기술에 이태리 디자인이 접목되면서 레셔널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명품가구 브랜드로 인식되었다.

5.1.4. 일본

5.1.4.1. 오카무라(Okamura)

일본의 사무용 가구 제조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 중의 하나인 오카무라사는 켄지로 요시와라(Kenjiro Yoshiwara)에 의해 1945년에 창업되었으며, 1946년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분야는 사무실, 공공장소, 상점 및 가정용 실내시스템의 제조와 디자인을 포함한다. 오카무라사의 현재 세 가지 컨셉(정보, 국제화, 통합)의 전략아래 최대의 성장

을 목표로 한다.

연구와 정보의 발견을 통한 작업환경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요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다양한 작업환경들은 전형적인 사무실과 이동 사무실, 인공 사무실, 소규모 및 가정용 사무실(SOHO)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컨셉은 미래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 유익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라인에 결합력 있는 통합을 말한다. 또한 현재 주요 제품인 사무용가구, 공공장소와 상점 디스플레이 외에도 각도를 달리하여 시스템 설비, 파티션, 가정용 실내제품, 통신 관련제품 등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스틸가구 전반의 제조·판매와 산업기계 그 외의 제조·판매, 금속제 창호 설치공사의 청부, 건축업에 관련되는 부대 공사·설계·제조·판매, 상품 진열기기 그 외의 제조·판매, 사무소의 환경 향상과 사무·생산 효율 향상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것에 관련하는 기기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5.1.4.2. 이토키(Itoki)

이토키사는 일본의 사무환경 역사와 함께 해 온 이 분야 최고의 일본 회사이다. 1890년에 오사카에 이토키-쇼텐으로 시작하여, 타이쇼(Taisho), 쇼와(Showa), 헤이세이 에라스(Heisei Eras)의 커다란 변화를 통하여 일본의 사무실 발전을 위해 주요한 공헌을 한 회사이다.

이토키사는 처음에 안전과 등근 문, 캐비닛과 로커와 같이 저장용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제조하였으며, 철제 책상을 대중 소비제품으로 상업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회사는 가구와 공공시설의 종합적인 제조회사가 되기 위해 선반 시스템과 파티션 같은 사이트(site) 설치 제품을 취급하는 데까지 그들의 사업을 확장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학생용 철제 책상을 개발하였으며, 일본 내의 시장에 회사의 열의를 받쳤다.

이토키사는 동양적 사업전략을 발전시켰던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여 해외의 회사들을 이끄는 기술적 협력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사업-기법 시스템과 창고 시설의 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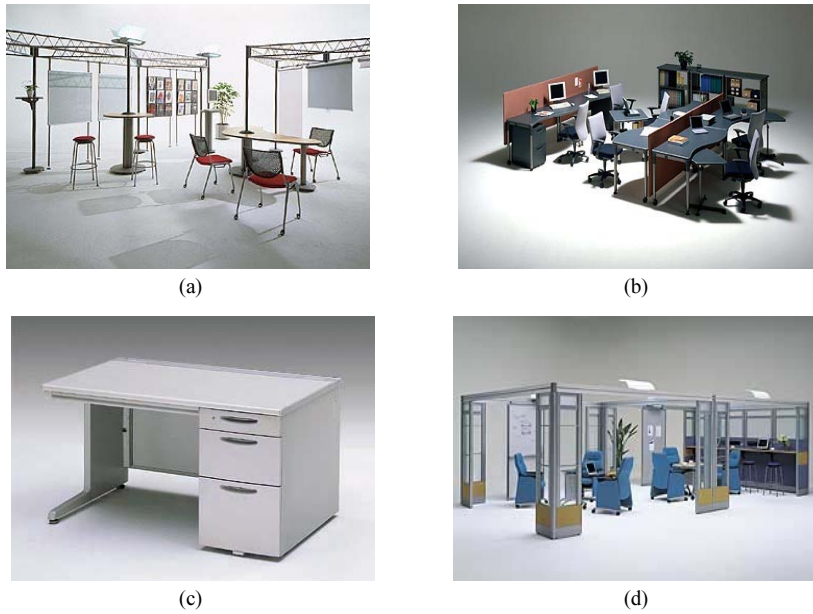


Fig. 13. (a) Alt Share (2000), (b) Aption, (c) SD-e (2000), (d) INPILE room unit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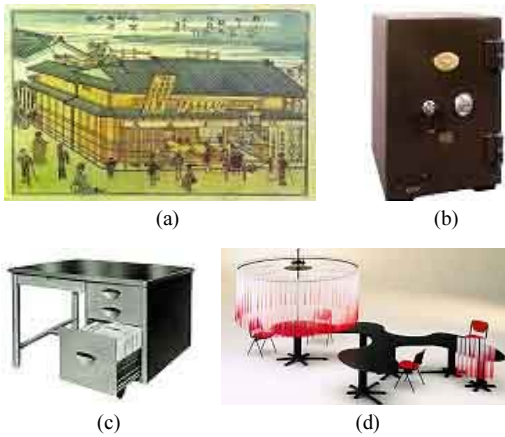


Fig. 14. (a) Founded (1980), (b) Safe (1903), (c) Iron desk (1934), (d) Viotable (1988).

야로의 출입을 위한 선두주자이었다. 지속적인 신기술의 적용의 결과로 회사의 제품 구성은 오늘날 공간(사무실, 공장, 가정, 연구센터와 공공 및 상업 공간)의 광대한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5.2. 현대사무용 금속가구디자인의 경향

지금까지 세계의 대표적인 가구업체 제품 및 언혁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추구하

고 개발하여 왔던 제품 특성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세계 여러 기업들의 신제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현대디자인의 경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세기가 과거 어느 시대와도 달리 급격한 경제, 과학, 기술의 성장시기라고 한다면, 21세기를 시작한 지금은 바로 디자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디자인은 인간이 원하는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환경을 창출해 적응해 가는 행위로, 일상적인 제품을 비롯해 생활환경, 작업환경 등에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초기에는 인간의 감성보다는 편의를 우선시하는 디자인 경향으로 인해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점점 미와 기능이 합일된 디자인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즉, 세계는 오늘의 상상을 내일의 현실로 발전시키는 과학정신의 구현을 위한 도구가 디자인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게 된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디자인 트렌드가 몇 가지 있다. 자연 속에서 근원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내추럴리즘, 20세기 디자인의 대명사로 표현의 극소주의를 표명한 미니멀리즘, 동방의 정서와 예술을 애호



Fig. 15. Arclinea.

하는 오리엔탈리즘, 과학적, 기술적 요소가 중시된 미래지향적 테크니시즘,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디비주얼리즘이 그것이다. 이들은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인간에게 가장 유용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도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준다. 과학문명이 가져온 환경파괴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츄럴리즘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해소하기 위해 절제된 미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거론되어진 것이다. 또한 서양 위주로 발전된 디자인의 균형을 이루고 자국의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동양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오리엔탈리즘이, 대중적이고 획일적인 사상을 극복하고 다양한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려는 인디비주얼리즘 경향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디자인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이 중에서도 21세기 사이버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사조는 테크니시즘이다. 이는 다른 사조와 맞물리면서 그것의 이점이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 지구라는 개념이 지구촌이라는 통합 개념으로 변모가 가능하게 된 것도 테크니시즘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어느 한 사조만의 특성이 강조되지 않고 서로의 장점이 고려되어 연계될 경우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편의를 누리면서 인간적인 감성적 측면도 채워지게 될 것이다.

6. 결 론

금속가구디자인의 시대별 배경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의 기간은 공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 지역이 공업화함과 때를 같이하여 디자인에 있어서도 국제주의 양식이 유행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디자인의 과학적 접근 방법이 이용되고 알루미늄, 적층재,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가 이용되어 특수한 형태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3차원의 몰딩에 관한 프로세스에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이었던 찰스 임스의 작품에서와 같이 경량성(Lightness), 가동성(Mobility)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와 그에 따르는 형태의 금속가구들이 제작되었다.

1961년부터 1985년 사이의 후기 산업주의의 새로운 개념은 미래 사회에 대한 과잉 확장주의의 비전으로부터 탈피하여 건강하고 인간적이며 생태학적인 비전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 시기는 기능에 있어 물리화적인 면이 강조된 것에 비해 1960년대 이후 인간의 정서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이 기능성의 개념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회고주의, 표현주의, 개성주의, 다원주의, 모호성, 절충주의를 표방한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시각상의 표현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으로 주목된다. 생산성, 새로운 구조 재료의 활용, 실용성, 혁신성, 이동성, 인간의 정서적 요소, 단순성, 복합성, 상징성, 심미성 등을 다양하게 추구한 다원적인 종류의 금속가구가 발표되었다. 전 기간까지의 기능주의 일색 경향에서 탈피하고자 한 디자인 양식운동의 결과라 하겠다.

포스트모던의 디자이너들은 이미지를 명백한 자유로 나타내는 의인적인 은유나 형이상학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모던 건축가와와는 달리 표현상의 형이상학적인 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아마도 은유와 상징의 사용은 모던 운동에 억압되어 왔던 이유로 이 당시 그들의 재출현은 이제 미확립된 형이상학적 시대에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을 준다.

다각적인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표현방식에 있어서 모더니즘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어떠한 크기와 형태의 금속가구가 할지라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반응하여 인체에 자유스럽게 적용되거나 조절되는 형태들이 고려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시기로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이 요구되어지고 새로운 방식과 기능의 가구들이 디자인되었다. 그것은 좀 더 섬세해진 디자인의 다원화와 다양화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에는 초현실주의디자인을 제외한, 합리주의디자인(Rationalism Design)과 미니멀리즘디자인(Minimalism Design), 현대 역사주의디자인(Modern Historicism Design) 및 하이테크디자인(Hightech Design)의 경향이 모두 나타났으며, 이것은 새로이 등장한 신허리주의디자인(NeoRationalism Design)으로 모더니즘의 재인식을 통한 리디자인(Redesign)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리즘 시대에 발맞추어 동서양의 양식이 혼합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양식의 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창출을 꾀하는데, 간결한 형태에 다양한 색채표현과 풍부한 양식의 도입은 오늘날 현대 금속가구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라 하겠다. 또한 디자인 경향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공통적이거나 상이한 표현양식이 드물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가구에 금속을 사용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금속이 주는 기존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보다 고급스럽고 유연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금속가구디자인에서 가장 고려되고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기능과 조형적인 요소를 고루 맞춰가면서 사회적, 기술적 환경의 양식으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소재와 구조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공학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문제 인식 역시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페니스 파크. 2004. 디자인 역사 - 20세기의 디자인의 선구자들. 예경.
- 신홍경. 1997. 12. 현대 의자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제13호.
- 유연숙. 2002. 마르셀 브로어의 가구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30: 210.
- 무역위원회, 한국생활환경위원회. 2004. 가구산업경쟁력 조사.
- 정시화. 1999. 현대디자인 연구. 현대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서울 미진사.
- 윤기택. 2003. 사무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업무 효율성의 관한연구. 한국가구학회춘계학술대회논문.
- Alloway, L. 1974. American Pop Art/New York; Rizzoli.
- Aronson, J. 1996. The Encyclopedia of Furniture/London; B T Batsford Ltd.
- Boger, L. A. 1969. The Complete Guide to Furniture Style/NY; Charles Scribner's Sons.
- Boyce, C. and J. Butler. 1985. Dictionary of Furniture/NY; Hnery Holt & Co.
- Brunt, A. 1985. The Illustrated Guide to Furniture/London; Peerage Books.
- Barbie, C.-C. and T. Benton. 1979. Tubular Steel Furniture(Conference paper)/London; Mang, Karl, History of Modern Furniture/London; Academy Editions.
- Charles J. 1991.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New York; Rizzoli.
- Charlotte & Peter Fiell. 1993. Modern chairs/Taschen.
- Crochet, T. Designer's Guide to Furniture Styles.
- Fairbanks, J. L. and B. E. Bidwell. 1981. American Furniture; 1620 to the Present/New York; Richard Marek Publishers.
- Frank, E. Mondrian/New York; Rizzoli.